

Vol. 622
2021. 09.27-10.03

공감



gonggam.korea.kr
스캔하면 <공감> 누리집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종전 선언
함께 하자”





청년을 위하여

가수 이무진이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 제2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축하무대를 꾸미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20 도쿄올림픽 우승희(높이뛰기)·김민정(사격) 선수, 도쿄패럴림픽 최광근(유도)·최예진(보치아) 선수가 참석해 청년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청년 1000여 명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 기온은 몇 도나 더 오를까?

● 윤진서 배우

2003년 영화 <올드보이>로 데뷔 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책 <비브르 사비> 등을 썼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어거스트 진'을 개설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며 제주에 살고 있다.



중문색달해변의 야자나무 | 윤진서

낮선 곳에 발을 디디면 이국적인 건물이나 이국적인 사람들로 부터 여행의 설렘을 느끼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게 설렘을 주는 것은 이국적인 식물이었다. 이탈리아 남부 어딘가에서 본 몇백 년도 넘은 올리브나무, 멕시코 도로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내 키보다 큰 선인장, 그리스의 하얀 집들 사이에 주렁주렁 열린 레몬나무, 캘리포니아 해변에 즐비하게 서 있는 훌쭉하고 키가 큰 야자나무들... 그 식물들이 없었다면 이토록 선명하게 향기까지 남아 있지 않았을 곳들...

어쩌면 내가 제주도에 끌린 점도 이와 같은 이유일 수도 있다. 중문색달해변으로 가는 길에 줄을 이어 선 야자나무와 걸을 때마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감싸는 곳자왈. 게다가 불과 몇해 전부터 제주에서 올리브나무도 노지(지붕 등으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 생육이 가능해진 데다 레몬이나 바나나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모두 제주도 땅에서 나고 자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만 해도 설마 했지만 큰 올리브나무

를 정원에 심은 집을 보게 되거나 대형마트에서 제주산 레몬과 바나나를 살 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간다. 그러니까 신선한 레몬이나 바나나를 먹으며 이곳에 살고 있다는 약간의 자부심과 '지구 온난화가 어디까지 환경을 바꾸어 놓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된, 무어라 단정 짓기 힘든 감정이다.

혹시나 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올리브나무 한 그루를 화분에서 꺼내 마당에 심었고 2년이 흘렀다. 정말이지 화분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푸른 얼굴로 이파리들을 내밀며 태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겨울에 눈이 온다 해도 얼마 못 가 녹아 버리는 제주니까 올리브나무 정도는 생육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보니 외국에서 만난 올리브나무들은 기둥이 참으로 두꺼웠다. 그렇게 되려면 한참을 커야 할 텐데 화분에 가둬놓았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주에 그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뜨거운 태양 덕분일 것이다. 스페인 같은 곳에서 만나본 뜨거운 태양의 느낌을 제주의 여름에서도 만날 수 있다. 다만 습한 날과 건조한 날이 오간다는 것이 다를 뿐. 그래서인지 만나 볼 수 있는 식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기와 건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날씨라니.

내가 할머니가 될 때쯤 제주도의 평균 온도는 몇 도나 더 오를까? 심어 놓은 올리브나무의 기둥은 서양 것들만큼 두꺼워질까? 어쩌면 바나나나 레몬나무도 하우스가 아닌 노지라 해도 가능할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국산 올리브유가 생산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제주산 올리브유. 이름만 들어도 벌써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고 싶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라산 중턱에서 썰매 타는 어린이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백록담 주위의 하얀 신성함은 사그라들지도 모른다. 겨울이면 찻던 눈 덮인 영실코스도 더 이상은 사라질지 모르지. 그러니 지금을 즐겨야겠다. 지금 주어진 것들을. ●



빈틈없이 풀과함께흔들리는
 풀벌레의 다리는 풀의 뿌리까지다
 풀벌레우는 소리는
 풀의 뿌리가우는 소리

김주대 



공감

훈민정음체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제호입니다.

Vol. 622
2021. 09.27~10.03



표 지 이 야 기

“중전 선언 함께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중전 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거듭 중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 열쇠말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윤진서의 '제주에서'

01 제주 기온은 몇 도나 더 오를까?

02 공감 글판

정상외교

- 06 “한·영 백신 교환, 양국 우호 관계 잘 보여주는 사례”
- 10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함께 중전 선언하자”
- 12 “우리 문화 위대함과 K-컬처 가능성 더 확장”
- 14 카드뉴스/국민과 함께, 선도국가 도약

힘내라 대한민국

- 15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제라니움'으로 치유를
- 16 1차 접종률 70% 돌파... 10월 말 완료 목표
9월 17일부터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

특집_세기로 향하는 K-바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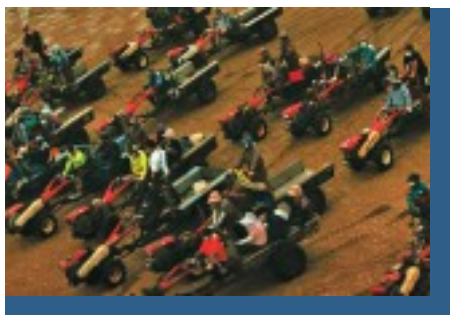
- 22 K-방역으로 도약 이론 바이오산업
K-글로벌 백신허브로 성장 가속화
- 26 기업, mRNA 등 신기술 개발 속도 내고
정부는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축 지원
- 30 국민 건강 수명은 연장하고
디지털 산업 성장 계기 마련

2022년 예산안

- 32 “내 아이디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뿌듯”
- 33 “예산 반영된 걸 보며 국민참여 중요성 깨달아”

26





52

포용적 복지

- 34 0~1세 영아 2022년 매월 40만 원 받아
맞벌이 육아휴직 땀 월 최대 600만 원
- 36 “치매 어르신 기억과 감각 일깨워 치료
시설·장비 외에 인건비 지원 늘려주길”

주거안정 대책

- 40 신혼+육아, 청년+창업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된다
- 41 집값 10%로 10년 살고 내집마련 기회
‘누구나 집’ 사업 본궤도

홍화정 만화_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㉗

- 42 일상 속으로 다가온 기후 변화

공감이 만난 사람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 44 “산림은 탄소중립 위한 자연친화적 해법
지식, 지혜, 영감 그리고 위로까지 담겨”

국민청원 정책이 되다

- 48 청소·경비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 50 양육비 내도록 처벌 강화... 긴급지원도 늘려

내 삶을 빛내는 문화

- 52 ‘범내려온다’ 후속 ‘경운기 머드맥스’도 터졌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54 세립티에스지 내 손안의 국민비서 ‘구뽀’
- 56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인공지능 감염 관리

연재_K-컬처 ㉔

- 58 남도에 가면 예술이 무르익는다

연재_ 공감 우리말 ㉑

- 60 daebak! mukbang, chimaek...
옥스퍼드사전 실린다 ‘대박!’

58



연재_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작가 ㉑

박수근

- 62 외국인도 먼저 알아보고 사랑한 한국적 그림
- 64 참여공감

발행일 2021. 09.2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황희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팩컴코리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한·영 백신 교환, 양국 우호 관계 잘 보여주는 사례”

영국·슬로베니아·베트남과 잇따라 양자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0일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코로나19 백신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날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회담에서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 간에 백신 교환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백신 교환은 한·영 우호 관계를 잘 보여 주는 사례로 백신 교환을 계기로 한·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은 양자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6월 11~13일, 영국 콘월)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100일만이다. 이날 회담은 영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영국의 ‘위드 코로나’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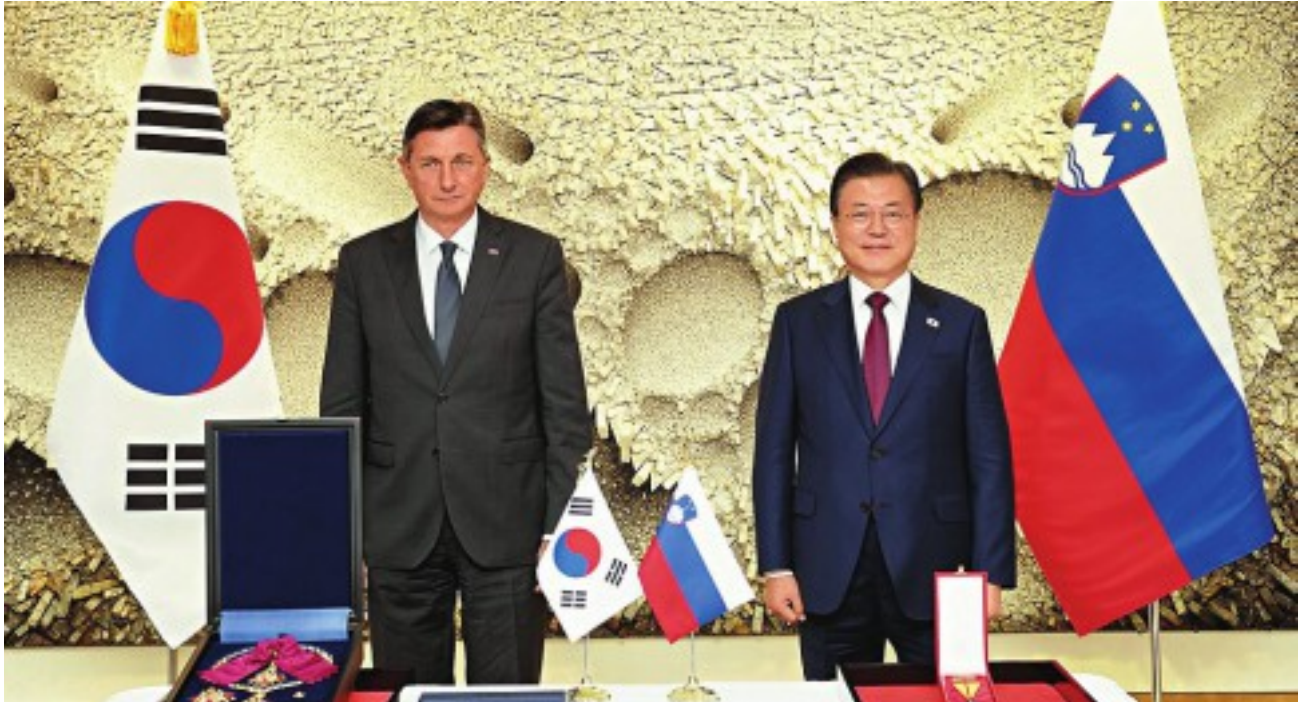
다”면서 백신 접종 선배 국가인 영국의 조언을 구했다.

존슨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로 조언을 갈음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6월 콘월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는 한반도·아세안을 포함하는 지역협력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조율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제기한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 “한국은 이미 석탄발전소 8개를 폐쇄했고 올해 2개를 폐쇄해 총 10개를 폐쇄했다”며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공적 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코로나19 백신을 교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0일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훈장 교환식을 하고 있다. | 청와대

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점진적으로 감축했지만 우리는 2018년을 정점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해야 하며 이처럼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언급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과 관련해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 방한이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됐으나 유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언급한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 해군 간 기술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최근 영국, 호주, 미국이 맺은 파트너십인 오크스(AUKUS)는 역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3자 파트너십인 오크스(AUKUS)가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고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슬로베니아 원전사업 우리 기업 참여 기대”

앞서 문 대통령은 9월 20일(현지시간) 오후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응우옌 쉰옌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 뉴욕 시내 한 호텔에서 응우옌 쉰옌 폭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10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10월 중에 베트남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파호르 대통령에게 슬로베니아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슬로베니아의 주한대사관 개설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부 유럽 물류 거점인 슬로베니아는 교역과 투자 확대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이며, 특히 코페르 항을 통한 운송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현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파호르 대통령은 “코페르 항은 수년 내에 현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게 열린 항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의 하반기 EU 의장국 수임 축하 인

사를 전하며 “EU와 한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미래성장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파호르 대통령은 “한국은 동북아 역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슬로베니아와 공통점이 많다”며 “슬로베니아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 또 한국 역시 슬로베니아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슬로베니아는 한국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백신 100만회 이상 지원”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9월 21일 뉴욕 시내 한 호텔에서 응우옌 쉰옌 폭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100만 회분 이

상의 코로나19 백신을 10월 중에 베트남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직접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방역 물자를 나누며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베트남 보건·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베트남의 질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베트남 FTA 발효 6년을 맞아 양국 경제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고 2023년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인프라, 금융 분야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폭 주석은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바이오, 의학, 첨단기술, 국방,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폭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유행 관리, 사회경제적 회복 등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며 2009년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두 정상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폭 주석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잘 이끌어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데 다음 경기는 호주, 중국”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베트남의 월드컵 선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선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

김현영 기자

“청년 문제 국가 책임” 청년의 날 특별대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8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제2회 청년의 날 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공개했다.

약 34분 분량의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리더이자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의 상춘재 소개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상춘재는 ‘늘 푸르른 봄과 같은 집’이란 뜻으로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이 늘 따뜻했으면 또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4년간 국정 운영을 하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 가장 아쉬운 점을 질문받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부터 국민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코로나19 전까지는 청년들 손을 잡기도 하고 ‘셀카’도 찍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전혀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고통을 가장 전면에서 먼저 받고 가장 무겁게 고통을 느끼는 세대가 바로 청년”이라며 “이는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미아리에 조그마한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인기를 끌었다. 그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고 구속되면서 꽤 긴 세월을 낭인처럼 보낸 때가 있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개인적인 삶의 측면에서는 암담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긴 인생을 놓고 보면 몇 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며 “내가 선택한 길을 잘 걷고 있다고 스스로 희망을 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청년들이 학자금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며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분에게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뒷받침을 해준다면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더 뛰어난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함께 종전 선언하자”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 열쇠말로 제시했다.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미중은 6·25전쟁 당사국이고 북미중은 정전협정 서명국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9월 26일 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75차 유엔총회 연설에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이뤄낼 때 완전한 평화 시작”

문 대통령은 30년 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 등을 통한 감염병·자연재해 대응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며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됐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라며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엔이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왔다”면서 “코로나를



문재인 대통령과 그룹 방탄소년단이 9월 21일 오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은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과 기후 위기 대응을 꼽았다. 이어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자회담 20여 개국에서 요청… 3개국 선별 진행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월 22일 오후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이번 유엔총회 참석 배경에 대해 “글로벌 의제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며 “그런 가교역할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한국이 ‘우리와 회담을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양자회담을 요

청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유엔총회 때만 해도 양자회담을 요청한 국가가 20개국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영국·슬로베니아·베트남 등 3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박 수석은 이처럼 3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영국은 G7을 개최하면서 기후변화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됐고, 슬로베니아는 차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 탄소국경세 부과나 여러 의제 때문에 택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경우 “신남방·신북방이라는 문재인정부 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SDG 모먼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과 관련해 박 수석은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BTS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의견이 있는데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엔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체 정상 대표로, BTS를 세계적 아티스트이자 미래세대 대표로 각각 따로 초청했다는 해명이다. ●

이찬영 기자

“우리 문화 위대함과 K-컬처 가능성 더 확장”

김정숙 여사 차세대 한인 청년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9월 2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운중 뉴욕한국문화원장 등이 동행했다. 1870년 설립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 최대 규모 미술관이자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힌다.

김 여사는 한국실에서 금동반가사유상과 달항아리, 상감 청자, 조선시대 흥배, 화조 병풍, 현대 분청사기, 현대 여성용 흥배 등을 관람한 뒤 “우리나라에서 온 다양한 문화유산과 현대 작품들이 문화 외교 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며 “메트로폴리탄의 한국실이 한국과 한국미를 세계인에 전하는 뜻깊은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TS 리더 RM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문화특사로서 우리 문화의 위대함과 K-컬처의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 넓혀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맥스 홀라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장은 “BTS의 유엔 연설과 퍼포먼스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관심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춤을 좀 같이 춰도 괜찮을까요”라고 환영했다.

김 여사와 BTS 등 한국방문단은 ‘오색광율(五色光律)’이라는 우리나라 공예 작품을 미술관 측에 전달했다. ‘오색광율’은 정해조 작가가 우리 전통직물인 삼베를 천연 옷칠로 겹겹이 이어붙여 만든 것으로 우리 생활전통과 철학을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어 김 여사는 뉴욕한국문화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과 ‘차세대 한인 청년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여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처는 이제 세계문화

지형의 중심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취와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노력들이 K-컬처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늘면서 동포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뉴욕 한인 예술가분들을 중심으로 한인 아티스트들의 역사를 조명하는 사진전도 열렸다고 들었다”고 격려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이 모여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뉴욕 메트 미술관 내 한국실 확대 추진

한편 정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의 확대를 추진한다. 황희 장관은 9월 22일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추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유물을 장기 대여하는 형식으로 한국실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미술관 내에서 한국실의 규모가 중국, 일본과 비교해 너무 작다”며 “실제 국력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실은 165㎡ 넓이로 불상, 도자기 등 국보급 문화재가 전시돼 있다. 지난 199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건축 경비를 내고 삼성문화재단이 운용기금을 지원해 개관했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전시실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특히 중국 전시실은 아시아관에서 가장 크다.

그는 “실제 미술관 측에서 한국실 전시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며 “협상을 통해 한국실을 더 넓히더라도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보다 유물을 장기 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9월 21일 주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차세대 한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수문장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취와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노력들이 K-컬처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황 장관은 아울러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과 리움 미술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교류전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술관 측은 한국의 고대 유물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내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이건희 기증관’ 부지를 두고 1순위로 서울 송현동 부지를 거론했다. 그는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북촌과 이어져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관광 자원 측면에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BTS 유엔 연설 생중계 100만 명 지켜봐

한편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BTS와 여러 일정을 같이 하며 이들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활용한 주목 효과를 톡톡히 봤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문 대통령과 BTS가 참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 개회식을 100만 명이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개회식과 인터뷰, 그리고 9월 21일에는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급 회의에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연설을 한 뒤 방탄소년단을 소개했고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은 유엔 총회장 단상에 올라 “지금의 10대, 20대들은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코로나로 잃어버린 세대)’이라 불리지만 변화에 겁먹기 보다 앞으로 걸어나가는 ‘웰컴 제너레이션(변화에 도전하는 세대)’이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무대 중심에 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도 100만 명이 각국 정상이 아닌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주로 정치인들이 참석해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유엔 총회에서 올해는 다른 고위급 인사들을 제치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주목도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의 행사 동영상, 사진과 함께 “감사합니다”라는 한글 메시지를 올렸다. ●

원낙연 기자



“선진국으로서 국제위상 높이겠습니다”

선진국 격상

2021.7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실패 이래
사실상 최초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

G7 참석

2021.6

(G7: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2년 연속 한국 초청

올해 영국 G7 정상회의 참석 (경제협력개발기구 4개국만 초청)

3050 클럽

2018

(세계은행 1인당 국민소득 3,050달러, 인구 50만명 이상 국가)

세계 7번째 가입
식민지 경험한 나라는 첫 번째



“완전한 회복, 강한 경제 만들겠습니다”

경제대국

2020

글로벌 경제규모 세계 10위
'20년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IMF '세계경제전망' 2.4)

1인당 GDP G7국 진입

2020

1인당 국내총생산 사상 첫 G7 국가 진입
'20년 한국 1인당 GDP 3.1만 달러로
이탈리아 3.12만 달러 앞섰(IMF '세계경제전망' 2.4)

수출대국

2018

연간 수출 사상 최초 6천억 달러 돌파
수출 6천억 달러 돌파 세계 7번째
(미국 '93년, 독일 '02년, 중국 '09년, 일본 '99년,
네덜란드 '08년, 프랑스 '88년, 한국 '88년)

제조강국

2017~2019

제조업 경쟁력 세계 5대 강국
(17)13위 (18)13위 (19)15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제조업 경쟁력 지표(2019년)')



“세계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혁신 1위

2021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연구개발 집중도 2위,
특허활동 1위 등

디지털 선두

2020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디지털 우선 정부 1위,
플랫폼 정부 1위 등

반도체 1위

2020

반도체 수출액 세계 1위
시장점유율 56.9%
시스템반도체 역대 최초
300억 달러 수출

소프트파워 강국

2020

영화·음악 등 소프트파워 2위
[영국 모노클지,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가장 세련다" (20.10)]



“가장 믿음직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가신용도 역대최고

2021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역대 최고 수준 국가신용등급-전망 유지
S&P AA-, 루디스 Aa2-전망치, 피치 AA-전망치

대외신인도 ↑

2021.8

글로벌 금융위기(2008) 이후
COS프레미엄 최저
COS프레미엄 국가별 9위(2019년 자료로
보았을 때) 부도 위험 감소

외환부국

2021.8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8월 외환보유액 4,639억 달러
(7월말 기준 세계 8위)

환경·사회·지배구조 1등급

2020.1

루디스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평가점수
'20년 한국 최고등급 평가

자료: 대한민국정부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제라니움’으로 치유를

실내에 활력 주는 공기정화 식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무기력증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제한돼 실내 생활이 많아졌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내 공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예식물은 공기를 맑게 해주고 습도를 높이는 등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실내에서 파릇파릇한 반려식물을 가꾸보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 우울감을 해소하고 실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기정화 식물을 소개한다.



꽃이 피는 식물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코니나 창가에 두는 것이 좋다. 제라니움은 꽃이 피는 허브 식물로 기르기 쉬워 관상용 분화로 이용하며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발코니 안쪽이나 창가 바깥에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잎과 줄기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곤충이나 벌레를 쫓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창가에 두면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유럽에서는 창가에 많이 둔다.

제라니움의 음이온 발생량은 우수하고 포름알데히드 제거량과 상대습도 증가량은 최상으로 발코니에 놓으면 공기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봄과 여름에 걸쳐 화려한 붉은색 꽃을 피워 관상용으

로 키우며 우리나라에서 모기를 쫓는 것으로 알려진 구문초도 제라니움의 일종이다. 잎에서 나는 방향유를 이용해 포푸리, 차, 향수, 비누 등 미용용품에도 쓰인다. ●

자료: 정책브리핑

✓ 관리 요령

빛: 반양지, 양지

온도: 적정온도 15~25°C, 여름의 고온다습을 싫어한다.

용토: 배수가 좋은 용토를 사용한다.

관리: 약간 건조한 것을 좋아하므로 분의 겉흙이 마른 후 1~2일 두었다가 물을 충분히 준다. 흙이 과습하면 뿌리가 썩으므로 주의한다.

1차 접종률 70% 돌파... 10월 말 완료 목표 9월 17일부터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9월 17일 전체 인구 대비 70%를 넘겼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4일 만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3600만 4101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전체 인구 대비 7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인구로는 81.5%에 해당한다. 앞선 누적 접종자 기록을 보면 4월 29일 300만 명, 6월 10일 1000만 명, 8월 3일 2000만 명, 9월 5일 3000만 명을 각각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외 주요 국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작한 국가들에서 1차 접종률 50% 이후에는 접종 속도가 정체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 50% 이후에도 꾸준히 접종이 이뤄져 비교적 단기간에 70% 접종률에 도달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1차 접종자 수 3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쓰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아울러, 50대 연령층의 2차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10월부터 18~49세 연령층의 2차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단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며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60대 이상 미접종자 112만 명 접종 독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으면서 향후 미접종자 접종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 22일 미접종자 557만 5860명의 사전예약률은 1.2%(7만 862명)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112만 143명이다. 고연령층 예약자는 1만 1764명으로 1.05%다. 추진단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다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9월 18일 저녁 8시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예약을 시작했다. 예약 기한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이들에게는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외 주요 국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9월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을 마친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터 모더나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월 16일 “17일부터는 누리소통망(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 또는 각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의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이 같은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계획을 설명하며 “다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2차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을 기준으로 이를 후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2차 접종 예약 조정 등은 백신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이 경우 백신별 허가 범위에 따라 즉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4~12주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잔여백신은 1차 접종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으나 9월 17일부터 네이버 혹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당일신속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로 2차 접종도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 접종 예약 명단으로

올리는 방식인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으로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잔여백신만 가능하던 방식에서 잔여백신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넓어진다.

잔여백신으로 누리소통망이나 예비명단을 활용해 당일 접종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차 접종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8주를 기본으로 예약되지만 9월 28일부터는 본인의 사정으로 희망할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4~12주 범위 내에서도 예약일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 기준으로 2일 후로 날짜가 정해진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사회의 모두를 위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며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원자재 기업 한국에 622억 원 투자

한편 미국 백신원자재 기업의 약 600억 원 국내 투

자 유치 소식도 전해졌다. 청와대는 한미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백스(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약속했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네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며 “더 많은 백신 보급·지원으로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인 사이티바(Cytiva)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2022년~2024년 3년간 5250만달러(622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국내 제약사인 팜젠사이언스가 미국의 액세스 바이오, 아이비 파마와 백신 공동개발 협약 등을 맺는 등 백신 기업 간 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지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한겨레

코로나19에 혈액 수급난 대책 마련 착수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급혈액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9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혈액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첫 번째 국가헌혈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헌혈협의회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1명을 포함한 관계부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국가헌혈협의회 첫 번째 회의로, 국가헌혈협의회 위원 10명 및 17개 시·도, 2개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헌혈협의회는 우선 '국가헌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안)'을 심의했다.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헌혈협의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방식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헌혈 증진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안전은 혈액보유량 관심단계 지속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조치 및 대책'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공공부문 단체헌혈 참여, 유관기관 헌혈 독려 및 각 부처·지자체 헌혈 장려 임무의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증진에 힘써주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각 소속 기관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부처 국가헌혈협의회가 정착, 활성화돼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상황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헌혈증진 지원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정연 기자

세계로 향하는 K-바이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장기화를 예측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경고였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대응은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대유행 선언 1년 반 만에 전 세계에서 누적 환자 수가 2억 명을 훌쩍 넘었고 통계로 잡힌 사망자 수는 500만 명(9월 15일 0시 기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겪는 최대 재난이다.

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백신이 나왔지만 수급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국내외 전문가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로 대응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을 정부 목표 수준으로 올려 치명률, 위중·중증률은 낮추고 방역과 의료 대응을 추가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유행을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정 청장은 “접종률이 70%를 넘는 9월 말 또는 10월 초부터 준비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일상적인 질환으로 받아들이려면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갖추는 게 첫째 조건이다. 걸리더라도 신속하게 진단해 격리·치료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위탁생산 확대를 뼈대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 사업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다. 또 치료제 개발에 더 속도를 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해 방역·의료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감염병 방역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인 국내 바이오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도약할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자세한 정부 구상과 계획을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K-방역으로 도약 이룬 바이오산업 K-글로벌 백신허브로 성장 가속화

K-글로벌 백신허브 전략 추진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은 세계 모든 나라를 예외 없이 강타한 전대미문의 위기다. 나라마다 대처방식이 다르고 사회·경제적 피해 또한 차이가 많다.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국가의 핵심 가치이자 기본 임무인 만큼 코로나19를 통해 세계 각국 위기 대응 능력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

감염병 확산 차단과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K-방역은 전 세계 모범 사례로 뽑기에 손색이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우

리나라를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선도국가 반열에 올렸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의 코로나19 현황(worldometers.info/coronavirus)을 보면 9월 15일 현재 전 세계 224개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평균 2739명, 사망자 수 57.2명이다.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로 계산한 치명률은 100명 당 2.09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 피해 통계를 풀이하면 100명 중 2명 이상 사망하는 무서운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전 세계 인구 100명 가운데 3명에 가깝다. 지금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연내 100명 중 4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장기 대응 방식도 사뭇 다르다.
위기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도 보인다.

국립의료원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 국립의료원



우리나라는 사실상 코로나19 청정국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체계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충격은 더 참담하다. 9월 15일 현재 주요 37개 회원국의 누적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환자 수 평균 7753명, 누적 사망자 수 평균 136.5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피해는 다른 회원국에 견줘 코로나19 청정국에 가깝다. 누적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 가운데 466명, 사망자 4.3명꼴이다. 다른 OECD 회원국의 처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코로나19 안심 국가다. 치명률은 8월 11일부터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누적 환자 수가 10만 명당 1만 1648명으로 약 25배, 사망자(194.1명)는 무려 45배 많다. 영국과 프랑스도 인구 대비 사망자 수가 각각 40배를 넘는다. 유럽에서 모범 국가로 꼽히는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환자 수 10배, 사망자 수는 25배 더 많다. 일본은 코로나19 통계의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구 대비 환자와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각 2.3배, 2.9배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피해 상황이 덜한 나라는 뉴질랜드가 유일하다. 하지만 섬나라의 특수성이 있는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방역은 회원국들이 따를 만한 사례로 보기 힘들다. 뉴질랜드는 초기부터 강력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확산세를 막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대신

2020년 -2.1%의 역성장에도 2021년 성장률 전망치도 1%대에 머무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의 장점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졌지만 주요 선진 경제권에서 역성장 폭이 가장 적고 경제 회복 속도는 가장 빠르다. OECD에서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3.8%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가속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장기 대응 방식도 사뭇 다르다. 위기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도 보인다. 의약품, 진단도구(키트), 주사기 등 의료기기, 보건 용품 등 바이오헬스 제품의 수출이 2020년 사상 처음 연간 100억 달러에 진입했고 2021년 들어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누적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76억 50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허 등록은 최근 5년 사이에 연 평균 2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년 신약 관련 기술 수출은 전년 대비 네 배 늘어 약 5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확인된 K-방역의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생산, 진단도구, 의약품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백신 허브화 전략의 첫 번째 경로는 위탁생산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품까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에서도 최적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8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센터장 김병수 교수와 시료분석실을 살펴보고 있다. | 보건복지부

도약과 혁신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단계의 주도권을 이어가려면 K-글로벌 백신허브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병원체는 계속되는 변이 발생 때문에 완전 종식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확산세가 진정되고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떨어지면 독감처럼 일상으로 받아들여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역·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전환을 뒷받침할 기능과 수단은 대부분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공한다. 특히 백신 개발과 생산 주도권 확보는 절실한 국가 과제이자 코로나19 위기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할 발판이다. 정부가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중심지(K-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조직을 설치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 역량을 모아 총력 지원에 나선 이유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최적지

백신허브화 전략의 첫 번째 경로는 위탁생산이다. 백신은 관련 설비와 원부자재 공급, 원료 생산, 완제품 제조, 품질 관리, 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분업 생태계가 구축된 곳에서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품까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에서도 최적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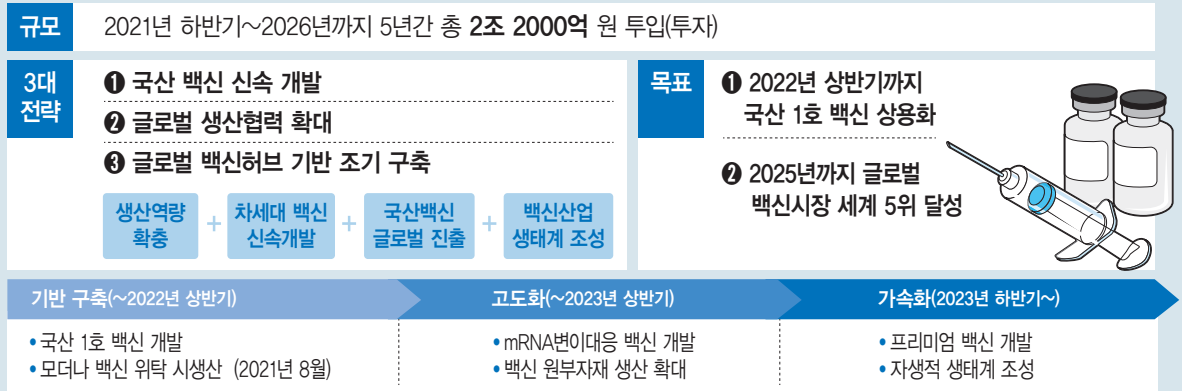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초기부터 생산 중이고 미국 노바백스와도 기술 이전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승인·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5월 미국 방문 당시 계약 성사를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월부터 미국 모더나사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생산을 시작했다. 러시아 국영 가말레야연구소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백신도 국내 휴온스글로벌 컨소시엄에 네 곳, 한국코르스 컨소시엄에 여덟 곳의 중견·중소 제약사들이 참여해 연내 위탁생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백신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원부자재 생산시설과 설비 구축에 기업당 최대 30억 원을 제공하고 자체 설비가 취약한 기업에 국제 표준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을 갖춘 공공 시설 활용을 지원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P 사전 검토 전달반을 설치해 GMP급 시설 구축부터 최종 평가까지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한다.

원부자재 자립화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2021년 6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요 조사를 했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세부 자립화 계획을 마련한다. 국산 백신 원료와 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 시험과 성능 평가, 상용화 기술 연구개발(R&D) 등 패키지형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주요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국산 백신 개발은 백신허브화 전략의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GBP510)의 임상3상 시험 계획이 8월 10일 식약처 승인을 받아 국산 백신의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 내 1호 국산 백신의 등장을 목표로 범정부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승인 받아 진행 중인 기업과 연구소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큐라티스, HK 이노엔,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유바이오로지스 등 모두 7곳이다.

정부,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범정부 백신 임상시험 지원 태스크포스(TF·특별팀)를 운영하면서 부처별 지원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기업이 신속하게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2상 종료 이전부터 개발 기업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사전 검토로 임상 3상 설계를 돕는다.

또 WHO와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비교임상에 필요한 대조 백신 확보를 지원하고 표준물질 검체 분석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임상 3상 지원 체계는 환자(피시험자) 모집과 접종, 검체 분석, 허가과 심사, 상용화 지원 등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3상 시험을 들어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국가임상시험재단

을 통해 임상시험 의향자 약 3000명을 확보해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 확보가 관건인 만큼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의료진이 지속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 의료 조치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검체 분석과 유효성 확인 작업은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한다. 또 3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식약처가 전담 조직을 통한 사전 검토를 하는 등 허가·승인 신청에서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투자비, 원부자재 선주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재원으로 일부 선구매를 추진하고 신속한 상용화와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국민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인 기업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도 끝까지 지원해 우리 보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백신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순빈 기자



큐라티스 연구원이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 서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큐라티스

기업, mRNA 등 신기술 개발 속도 내고 정부는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축 지원

신기술 mRNA 백신 국내 개발 현황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서 세상에 처음 등장한 mRNA 백신은 감염병 말고도 암 등 다른 만성병 영역으로 확장할 기술이기에 정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백신 기술로 꼽힌다. mRNA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은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대표적이다.

mRNA는 세포에서 유전자(DNA)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

면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항체를 생성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백신은 바이러스 일부를 항원으로 직접 체내에 주입하고 이에 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다. 소량의 바이러스를 투입해 면역 체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유전자를 주입해 항원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항체 생성으로 이어지게 한다.

mRNA 백신으로 국내 첫 임상 승인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나선 업체 가운데 큐라티스가 가

 **각 기업별 코로나19 백신 국내 임상 추진 현황 및 계획** (9월 초 현재) 자료: 보건복지부

구분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HK이노엔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큐라티스	아이진	셀리드
플랫폼	합성항원백신			DNA백신		RNA		바이러스백터
진행 현황	임상 3상	임상 1/2상	임상1상	임상 1/2a상 임상2/3상 (인도네시아)	임상 1/2a상	임상 1상	임상 1/2a상	임상 1/2a상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나선 업체 가운데 큐라티스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7월 19일 큐라티스의 코로나19 백신 'QTP104'의 1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7월 19일 큐라티스의 코로나19 백신 'QTP104'의 1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임상을 승인받은 mRNA 백신은 QTP104가 처음이다.

QTP104의 임상 1상은 국내 만 19~55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뒤 추적 조사해 ▲백신 안전성 ▲반응 원성 ▲면역 원성 등을 평가한다. 참여 기관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시험책임자 염준섭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시험책임자 송영구 교수)다. 이들 기관은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얻는 중간 분석으로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평가한 뒤 식약처에 빠르게 보고하는 것이 목표다.

큐라티스는 약 5개월 동안 1상을 진행한 뒤 신속심사를 거쳐 2022년 초 임상 2a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총괄 책임자인 최유화 전무는 “신속심사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급적 빨리 임상을 진행해 2023년에 국내 허가를 받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차세대 mRNA 기술… 50분의 1로 동일 효과

QTP104는 차세대 mRNA인 ‘자가 증폭 mRNA’(repRNA)를 활용한다. 항원의 유전 물질을 주입해 인체가 항원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에 따른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점은 기존 mRNA 백신과 같지만 repRNA에 자가 증폭에 관여하는 복

제 유전자가 삽입돼 기존 mRNA보다 항원 단백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최유화 전무는 “repRNA는 세포 내로 들어가서 자기 복제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상용화된 모더나 백신의 5분의 1~50분의 1만 투여해도 비슷한 수준의 항원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은 양의 백신이 투여되면 부작용 우려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기존 mRNA 백신처럼 여러 번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 더 적은 양으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폴리에틸렌글라이콜(PEG)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PEG 알레르기 부작용이 없는 점도 장점이다.

앞서 큐라티스는 쥐, 토끼, 원숭이 등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최유화 전무는 “특히 원숭이 모델의 공격접종시험(Challenge Test)에서 높은 용량군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백신을 한 차례 투여한 것만으로 50%가 넘는 방어 효과를 보였고 두 차례 투여했을 때 백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면역 원성 분석에서 한 차례 투여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확인했다.

정부, 국산 백신 개발 상용화 총력 지원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



큐라티스는 2020년 8월 충북 오송에 mRNA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오송 바이오플랜트'를 구축했다. | 큐라티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180억 원을 확보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지원 태스크포스(TF·특별팀)를 운영 중이다. 특별팀은 매주 부처별 지원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문제를 수시로 접수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큐라티스 등 국내 일곱 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이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8월 10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이 승인되는 등 기업이 단계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신속하게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 1/2상 종료 이전부터 개발기업과 일대일 맞춤 상담·사전 검토를 해 임상 3상 설계를 지원하고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비교임상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등 국제기구와 협력했다. 이로써 필수 대조 백신을 확보해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지원했고 표준 물질과 표준 시험법 등을 확립해 비교임상에 필수적인 검체 분석을 신속

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미국 HDT바이오와 지역·업무 나눠 개발

기업들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mRNA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큐라티스는 QTP104의 개발사인 미국 HDT바이오에서 기술을 도입해 지역과 업무를 나눠 공동 개발하고 있다. 개발 단계부터 HDT바이오와 동물실험 비용을 분담하는 등 협업했다. 큐라티스는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등 13개 나라에서 임상·상용화·생산·판매까지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HDT바이오는 자체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1상을 신청해 2021년 6월 승인받았다.

큐라티스와 HDT바이오의 인연은 결핵백신 연구에서 시작됐다. 결핵백신(QTP101)을 발명한 스티브 리드 박사와 초창기부터 mRNA 개발 논의를 진행했다. 그가 HDT바이어를 설립한 뒤 항암제 분야의 맞춤형 치료제를 구상하다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백신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2016년 설립된 큐라티스는 결핵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풍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 서열 연구를 진행 중이다. repRNA를 활용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RNA 백신 생산설비까지 구축 완료

큐라티스는 mRNA 백신을 개발하면 자체 생산설비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큐라티스는 2020년 8월 충북 오송에 mRNA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여러 백신의 원액과 mRNA 전달 물질인 지질나노입자(LNP) 생산 시설인 오송바이오플랜트를 구축했다. 오송바이오플랜트에는 탱크류, 생물 반응기, 배양기, 정제 장비, 고압 균질기 등 기본 설비에 다양한 무균 주사제 바이알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전 라인, 자동 이물 검사기 등 완제 생산설비까지 갖춰 mRNA 백신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한곳에서 일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이른 시간에 mRNA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큐라티스는 일반적 제조 수율, 반응기 규모, 일회 투여량, 바이알 규격, 공정 수율, 원활한 원자재 공급 등을 가정할 때 mRNA 코로나19 백신은 원액 생산 기준으로 연간 20억 도즈를, 완제품 생산 기준으로 연간 최대 7억 5000만 도즈까지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우화 전무는 “QTP104의 차세대 mRNA 코로나19 백신 임상 개발로 코로나19 백신 주권과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종식에 이바지하는 토대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조기 구축

앞으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180억 원을 확보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백신과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다. 특히 시설·장비 투자 여력이 낮은 중견·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정

mRNA 기술, 바이오벤처가 만들어간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연구개발 컨소시움이 최근 출범하며 국내 mRNA 백신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mRNA 벤처 컨소시움은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큐라티스, 아이진, 진원생명과학과 백신 생산 업체인 보령바이오파마가 참여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고 바이오벤처 간 기술협력 등을 통한 mRNA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결성됐다. 큐라티스, 아이진, 진원생명과학은 mRNA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로서 지난 9월 15일 기업 간 기술 협력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 mRNA 기술 국산화를 도모한다.

큐라티스는 국내 최초 repRNA(self-replicating mRNA) 코로나19 백신 'QTP104'의 국내 임상 1상 계획승인을 지난 7월 획득,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격 수준의 mRNA DS(원액), LNP(지질나노입자)와 DP(완제)까지 전 공정 수행 가능한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아이진은 mRNA 백신 'EG-COVID'의 국내 임상 1/2a상 계획승인을 지난달에 획득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또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양이온성리포좀 전달체 기술을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진원생명과학은 mRNA 백신 원액 cGMP 생산 기술과 플라스미드 cGMP 대량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범용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연구하고 있다.



큐라티스 연구원이 '오송바이오플랜트'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 큐라티스

부지원금 100% 이상의 현금출자, 위탁 생산 등 정부 요청 적극 협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백신 생산 목적 이외 사용 제한 등에 동의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 안에 본격적으로 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코로나19 백신과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낙연 기자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주관 의료기관 가운데 하나인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통합병원상황실(IRS) | 용인세브란스병원

국민 건강 수명은 연장하고 디지털 산업 성장 계기 마련

디지털 기술로 더 강해진 K-바이오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은 고립과 단절을 초래한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망이 더 커지고 강화된 나라들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도 디지털 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 영역 전반에 적용하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채택한 이유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컴퓨터공학을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두루 묶어 부

르는 용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바일 헬스, 인공지능(AI) 치료, 개인 건강기록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착용할 수 있는(웨어러블) 기기, 원격진료, 개인 맞춤형 의로서비스 등을 디지털 헬스로 분류한다.

세계 주요국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핀란드 시장조사 전문회사인 글로벌 인텔리전스 얼라이언스(GIA)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520억 달러(약 156조 원)에서 2027년 5080억 달러(약 588조 원)로 커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맞먹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를 2019년 기준

약 6조 42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디지털 헬스케어는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유망 산업인 데다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 감염 의심자 추적과 격리, 체계적인 환자 분류와 치료 등을 특징으로 하는 K-방역도 넓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대표 사업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불리는 마이 헬스웨이는 여러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대표 사업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2월 25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을 방문해 의료기기 협회 관계자들과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정보를 스마트 기기로 확인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일부인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건강기록'은 2021년 2월 24일 선보여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보급되고 있다.

나의 건강기록을 통해 개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구축된 자기 의료정보를 통합 조회·저장·관리할 수 있고 복잡한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또 새로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모든 데이터를 바로 확인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개인 질환의 정밀 진단과 진료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전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완성해 다양한 종류의 건강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지원 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5세대(5G) 통신 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병원 현장에 적용해 환자 안전 관리, 진단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 모델을 개발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스마트병원 선도모형의 취지다.

1차로 선정된 선도모형 지원 대상은 '중환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과 진료' '신속·정확한 감염병 대응' '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주요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수행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10곳과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비의료 기업 8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매년 세 개씩 새로운 분야를 정해 스마트병원 선도모형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효과가 확인된 선도모형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보급

의료 분야 디지털 뉴딜의 주요 사업인 '닥터앤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 앰블런스' 개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이 공동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의료계와 소프트웨어(SW)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25개 병원과 21개 기업의 협력 컨소시엄인 닥터앤서는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융합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의료 솔루션 서비스다. 닥터앤서를 활용하면 8대 주요 질환에 들어가는 연간 진료비 7조 2000억 원의

8.7% 수준인 62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추정한다.

우선 전국 8개 주요 거점 지역 상급종합병원 또는 건강검진센터를 중심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닥터앤서 클리닉'을 지정해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 또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복지부)과 소방정보시스템(소방청)을 연계해 AI앰블런스의 전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공모를 통해 초기 도입비(구급차 15대와 의료기관 4곳 설치 장비 예산)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인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또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아희귀질환에 대해 '닥터앤서 소아과' 적용 범위를 현재 2종에서 8종으로 늘려 소아희귀질환에서도 인공지능 진단·치료 기반을 확대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기술 역량을 결집하고 널리 확산하면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순빈 기자

“내 아이디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뿌듯”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모두 71개 사업, 1414억 원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국민 제안(1589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해 예산 요구안에 반영·제출했고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국민참여예산에 '의료비 공제 자동 적용'을 제안한 정태원 씨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다. | 정태원

‘의료비 공제 자동 적용’ 정태원 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면 3개월 이상 지속해서 지출된 의료비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의료비는 다른 소득재산 정보와 달리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병원, 약국 등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챙겨 증빙해야 한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정태원(44) 씨는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부담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신청했는데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 실질 소득은 낮음에도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들거나 자식과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증빙을 못 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처음 신청할 때 증빙해서 인정받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확인 조사할 때 영수증을 계속 제출해야 하므로 누락되는 경우가 반복됐다.

고민하던 그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의료비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의료비 지출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하

면 신청인의 불편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출 서류를 수기로 등록해야 하는 행정력도 함께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 공제 자동 적용’ 예산 5억여 원 배정

마침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사업에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가 2021년 초 열렸다. 그가 제안한 ‘의료비 공제 자동 적용’은 공모대회에서 최종 입상하진 못했지만 부처 적격성 판정을 통과해 2022년도 예산 5억 2600만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업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조사하는 항목 가운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동의를 위한 신청 서식을 개정해야 하므로 우선 개인정보 입수가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군이 바로 사회복지직”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국민의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다.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아동학대방지 조사업무를 하거나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업무를 한다. 형편이 가장 어려운 국민을 현장에서 대면하는 업무를 맡은 셈이다.

정 씨는 “처음에는 공무원이라 국민참여예산에 섰 못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낀 점이 사라지지 않도록 용기를 내 제안하게 됐다. 내가 낸 아이디어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지원을 받아 그 순간을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게 돼 가슴이 뿌듯하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되거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

원낙연 기자

“예산 반영된 걸 보며 국민참여 중요성 깨달아”



2020년 11월 20일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참여예산 대학생 공모전’에서 김성사(오른쪽)·현환빈 씨가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 김성사

‘보호수 관리 체계’ 김성사·현환빈 씨

2019년 6월 18일 경남 진주성 안에 있는 15m 높이의 고목이 뿌리째 뽑히면서 성벽 쪽으로 넘어졌다. 진주성 서문 계단과 매표소 쪽을 덮쳐 성벽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수령이 6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느티나무로 진주성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나무였다. 전문가들은 “안쪽 부분이 썩어 나무 속이 비어서 쓰러졌을 것”이라며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은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관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당시 경기도 수원광교박물관 인턴으로 일하던 대학생 김성사(단국대 응용컴퓨터공학과 4학년) 씨는 이 일을 계기로 박물관 앞 광교역사공원에 있는 보호수의 관리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5년 8월 28일 문화재청 훈령 제370호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령이 오래된 나무)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노거수 보존관리가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관리가 허술해졌음을 알게 됐다.

그는 친구인 현환빈(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2학년) 씨와 함께 우리 삶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노거수의 의미와 문제가 계속 제기된 보호수 관리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새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위험성이 커진 노거수와 보호수에 대한 더 나은 관리 체계를 모색했다.

두 사람은 2020년 열린 ‘국민참여예산 대학생 공모전’에 보

정부는 김성사·현환빈 씨의 제안을 채택해 2022년

예산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보호수·노거수 통합관리 기반구축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호수·노거수 관리 국가 통합체계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각자의 전공을 살려 인공지능, 대량자료(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지도, 피해 발생 예측 정보체계,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호수·노거수 관광상품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 산림지도는 보호수·노거수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고 관리 담당자와 지자체를 명시해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7.5억 원 투입 보호수 통합관리 기반구축

정부는 김성사·현환빈 씨의 제안을 채택해 2022년 예산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보호수·노거수 통합관리 기반구축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전국 보호수 1만 3900본에 대한 위치정보와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령 300년이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보호수 2420본에 대해서는 생육상태와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

두 사람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토대로 정부가 예산안을 수립하는 것을 보며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노거수와 보호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참여예산 대학생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나라 정책을 제안하는 소중한 기회를 경험했다”는 김성사 씨는 “앞으로 전공을 망라해 폭넓은 지식 활용과 사고를 통해 융합적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원낙연 기자

0~1세 영아 2022년 매월 40만 원 받아 맞벌이 육아휴직 땀 월 최대 600만 원

2022년 예산안으로 본 아동·영아 수당

출산지원금 200만 원과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0~1세)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지급된다. 특히 기존 7세까지만 월 1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도 범위를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6조 9377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1년 대비 8.2% 증가한 규모다. 영아 시기 지원을 대폭 늘려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방향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리고 영아수당을 포함한 ‘친가족 5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친가족 5대 패키지에는 예산 4조 1000억 원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영아(0~1세) 수당 월 3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확충 ▲다자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아이 낳은 부모 경제적 부담 덜어주게

우선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 없이 1회 200만 원 출산지원금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부가 병원 진료비에 쓰는 바우처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을 1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의료보험 13만 5000원, 지역의료보험 9만 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가 권고 시 확진 검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여기에 2022년에 태어나는 아동에게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30만 원 지급한다.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0~1세가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면 15만~20만 원씩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0~1세는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따라서 0~1세 아동은 2022년에는 매월 40만 원씩, 2025년에는 6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미이용시 현금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2년에 신생아 27만 5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영아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따라서 0~1세 아동은 2022년에는 매월 40만 원씩, 2025년에는 6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첫째부터 모두 함께
자라게 하고 싶어서
자녀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때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살 때
충족할 수 없어 걱정하는
아이들을 알고 보면 더 많은 애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아이 ♥아빠티서연공모 - 정○옥님

**정○옥님을 위한
'아동수당'을 추천합니다 ♥**

✓ **지원 대상**
-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하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함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모바일앱(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고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1년 더 늘려 지원을 넓혔다.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 조치로 43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3+3 공동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월급을 받게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를 지급하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초·중·고등학교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50곳과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도 30곳에서 실시한다.

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자부담 설제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린다.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5곳에서 140곳으로 확충하고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81곳에서 95곳으로 늘린다.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2000명에서 4750명으로 확대한다.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방문형 사례관리도 추진한다.

또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지급까지는 셋째 이상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까지 확대된다. ● 심은하 기자



“치매 어르신 기억과 감각 일깨워 치료 시설·장비 외에 인건비 지원 늘려주길”

치매국가책임제 4년 ‘1호 치매안심병원’을 가다

2021년 8월 27일, 경북 안동 시내에서 차를 타고 낙동강 지류 하천을 따라 남쪽으로 20분가량 내려가니 이윽고 남후면 무릉리에 닿았다. 한적한 농촌에 들어서니 ‘치매국가책임제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제1호 치매안심병원’이라고 쓰여 있는 대형 현수막이 병원 외벽과 현관에 걸려 있다. 의료법인 안동유리의료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경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

표하면서 효율적인 국가 치매 치료·관리대책으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가 치매안심병원이다.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19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 곳이다. 현재 신경과 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치매관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치매 전담 전문 인력 수십 명이 24시간 내내 치매노인 입원 환자(총 133명)를 치료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해 돌보고 있다. 병원 안에



“여기 입원해 치료·관리 중인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어릴 적에 경험하고 직접 놀았을 법한 장면을 벽화로 그려 치매 질환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고 감각을 자극하기 위한 겁니다.”

는 3개 병동에 걸쳐 총 133개 치매 병상(신관 51병상, 본관 82병상)을 운영 중이다.

환자에 소득 지원·보장프로그램도 상담

신관 치매병동 4층에 들어서면 긴 복도의 양쪽 벽마다 치매 환자들에게 기억과 감각을 일깨워주기 위한 각종 벽화가 가득 차 있다. 농촌에서 웃놀이하는 장면, 팽과리를 들고 사물놀이하는 풍경, 어머니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그림 등이 눈길을 끈다.

“여기 입원해 치료·관리 중인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어릴 적에 경험하고 직접 놀았을 법한 장면을 벽화로 그려 치매 질환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고 감각을 자극하기 위한 겁니다.” 손성에 사회복지사의 설명이다.

마을에서 단체로 김장을 담그는 장면, 닭장과 소마구간 등 농사일 벽화도 눈에 띈다. 여기 병동에서 사회복지사는 치매 환자들에게 공격적인 소득 지원·보장프로그램을 상담해주고 각종 불만과 고충을 해결해주는 일을 한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2년간 국가에서 치매치료·관리에 쓰이는 각종 시설·장비를 지원받았다. 복도 벽화도 그중 하나다.

4층 병동 한쪽에는 스노즐렌실(Snoezelen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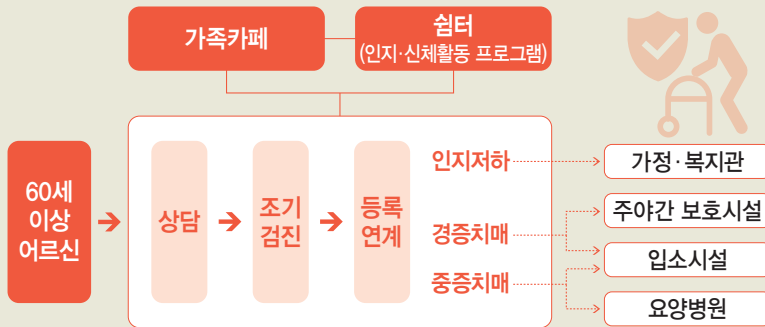
이 마련돼 있다. 26㎡(8평)가량 되는 방으로 일종의 심리안정치료실이다. 치매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배회, 초조, 불안, 신경과민, 불면, 흥분과 공격성이다. 스노즐렌실은 치매 환자에게 기분 좋은 자극을 제공하는 등 비약물적 방식을 적용해 환자들이 겪는 증상들을 경감시키는 요법이다. 방 내부는 여러 은은한 색깔의 조명 아래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돼 있다. 환자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신체·심리적인 재활을 촉진한다. 이 심리안정치료실도 보건복지부 지원금으로 설치했다.



1·2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병동의 복도 벽화 3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입구 4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병동의 스노즐렌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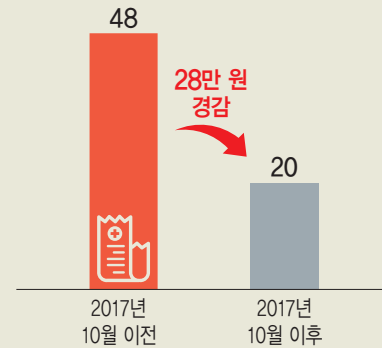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2021년 8월 기준 368만 명 이용)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액 경감 (연평균, 단위: 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후각 되살리는 향기 요법 치료도

병동은 각종 조명·색채·영상·음향 등을 이용해 행동심리증상(BPSD·치매에 동반되는 망상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환경을 곳곳에 조성했다. 노트북 등을 활용한 전산화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도 있고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더듬어 치매 회복을 돕는 회상 치료법도 시행하고 있다. 젊은 시절 논밭에 나가 농사지를 때 썼던 농경 장비 사진을 치매 환자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를 들려주면 신율에 맞춰 몸짓을 따라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종욱 치매종합관리센터장은 “여름철에 물장구치던 이야기, 동짓날에 팔죽을 만들어 먹던 이야기 등 계절에 따라 음식과 장소를 달리해 이야기를 꺼내 들려주면 환자들의 치매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동화책을 읽어주면 등장인물에 대한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아로마테라피로 후각을 되살리는 향기 요법도 있다. 향기 요법은 치매 환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거부감도 적은 편이다.

안동·영주·풍기·의성·군위·청송·영덕·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 시·군 곳곳에 마련돼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치매질환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치매 증상 진단을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이면 곧바로 입원 치료에 들어간다.

현재 입원 치료·관리 중인 치매환자 약 130명은 노인(여성 70%, 남성 30%)이다. 이 센터장은 “우리 요양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일곱 곳에서 하루 평균 두세 건가량 치매검사 의뢰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의뢰하면 검진 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이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병상 침대, 체중계, 심전도계측기, 심장충격기 등 약 20종의 시설 장비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시설·장비 지원금은 병상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 덕분에 기존 병동을 치매 환자들이 더 쾌적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기존 6인실을 4인실로 개·보수했다. 병실 안과 복도 내벽도 노랑, 초록, 황톳빛 등 자연 원색의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는 색깔로 칠했다.

손 복지사는 “어린이집처럼 화사하고 밝게 꾸며 치매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고 말했다. 치매 증상으로 우울한 상태에 있다가 복도와 병실 곳곳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작은 사고도 간혹 일어나는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난간도 여기저기 설치해뒀다.

“더 잘 치료하려면 더 많은 의료 인력 필요”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가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요구한 필수 의료 인력은 확보했지만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고 관리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인력 인건비도 지원해주는 쪽으로 확대해주면 좋겠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 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시설을 갖춰 단기 입원 치료로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병원이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시설 인프라(치매환자 전용병동 30~60병상 규모 4인실 이하로 설치)와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치매 환자는 주로 종합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받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치매 전문 병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매안심병원은 공모로 선정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거칠고 힘이 든다. 드물지만 간혹 간호사나 다른 환자들에게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거나 욕설을 내뱉은 치매 환자도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들은 요양치료사 등 의료 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해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다.

이 센터장은 “지역에 있는 여러 병원마다 대부분 근무를 꺼리는 탓에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임상심리사 등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국가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요구한 필수 의료 인력은 확보했지만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고 관리하려면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지정병원에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지원해주는 쪽으로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환자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근 노인요양시설을 찾아가한다고 한다. ●

글·사진 조계환 기자

4년간 치매안심센터 256곳 설치 치매환자 의료·돌봄 지원 강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000년 339만 명(7.2%)→2017년 712만 명(14.2%)→2020년 813만 명(15.7%)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1051만 명(20.3%)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치매 환자(65세 이상)는 2020년 86만 3000명(추정)이다. 2025년에는 107만 7000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4년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했다. 치매안심병원으로는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 제노인전문병원 등 네 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115곳 설치됐다.

지난 4년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도 대폭 줄었다. 2018년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고 그해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했다. 앞서 2017년 10월부터 고비용 치매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증치매질환자에게 산정특례도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치매 환자는 향후 전국적으로 더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육아, 청년+창업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 청년 창업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엔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후 운영까지 맡는 형태로 기획됐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국토부, 1000가구 규모 시범사업 추진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한다. 이 때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 3000만~1억 5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시세의 절반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조건은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같다.

사업자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액(시세의 30%)을 LH에 납부해야 한다. 미술품 판매시설 등 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사전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신청서 접수는 LH에서 받는다. 연말까지 1·2차 심사를 거쳐 2022년 초 선정 사업을 발표하고 약정을 체결해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LH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찬영 기자

집값 10%로 10년 살고 내집마련 기회 '누구나 집' 사업 본제도

보증금으로 집값의 10% 수준만 부담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한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택지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경기 의왕 초평, 경기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두 6075가구다.

'누구나 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누구나 집'은 거주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누구나 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6075가구 공모...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평가의 차별성 및 주안점은 먼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하고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이찬영 기자

즐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홍화정 그림

37. 일상 속으로 다가온 기후 변화



생각해 보면 이번 여름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고



제다가 굉장히 변덕스러웠습니다.



세계 곳곳의 이상징후들이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어마어마한 면적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어딘가 낯선 날들이 이어진 올해 여름.



다음 탄소중립 모임의 주제를 찾아보다



매년 달라지고 있는 날씨를 떠올립니다.



그간 SF영화처럼 느껴지던 커러드들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망설일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산림은 탄소중립 위한 자연친화적 해법 지식, 지혜, 영감 그리고 위로까지 담아”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지금 숲에는 청량한 기운이 가득하다. 시원하게 비가 내린 뒤에는 숲속이 수분으로 꽉 채워져 더욱 싱그럽다. 2020년 10월 17일 개원한 국립세종수목원이 시민들에게 처음 선보인 지 11개월 만에 관람인원 60만 명(9월 12일 기준)을 넘겼다. 이에 맞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옆에 들어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이유미(59) 원장을 만났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대중부권 산림생물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표방하고 설립된 국내 세 번째 국립수목원이다.

“광릉의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보존과 여러 생물종에 대한 조사·분류·보존 등 기초 연구 중심이고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 보존과 복원, 종자 금고로 불

리는 ‘시드볼트’를 통한 종자 연구·보존이 주요 목적입니다. 대개 수목원은 도시 외곽에 나무 좋고 숲 좋은 곳에 있기 마련인데 세종은 계획할 때부터 도심 한복판에 조성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입니다. 정원 문화와 식물교육의 거점으로 국민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친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총 규모 65ha(약 20만 평)에 3065종의 식물(자생·재배·희귀·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설계·조성에 나서 약 20개의 각종 주제별 정원·온실·화원·숲 동산을 만들었다. 이 원장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돼 나무와 풀들이 자리를 잡고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심어 놓은 식물들이 자라 매년, 계절마다 깜짝 놀랄 만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와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식물·자연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2

탄소중립 달성 위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넷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인 2050 탄소중립은 현재 전 지구적 목표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에 이어 2020년 중국(9월 22일), 일본(10월 26일), 우리나라(10월 28일)가 잇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된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과 홍수·가뭄·폭설 등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인 피해가 이미 우리 곁에 다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주목하고 있는데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거점이면서 탄소저장고이고 오염물질을 흡수해 공기를 정화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빠르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산림이야말로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 친화적 해법이지요. 다만 산림마다 조성의 배경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한 만큼 지혜롭게 이용하고 보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도 이 점을 생각하고 산림을 즐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1 국립세종수목원에 있는 사계절전시온실 모습 2 이우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
3 국립세종수목원에 들어서 있는 전통공원 |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온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야외에 심은 나무들은 어린 편이라 야외 전시원보다 주로 사계절 온실을 찾아와 즐기고 평도 아주 좋습니다. 분재원, 전통정원, 생활정원, 희귀특산보전원 쪽도 전문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계절전시온실은 우리와 기후대가 다른 지중해식물과 열대식물을 전시해 식물의 종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최고 높이 32m, 총면적 1ha로 붓꽃의 세 개 꽃잎을 형상화해 디자인했다. 지중해전시온실에는 물병나무·올리브·대추야자·부겐빌레아 등 228종, 열대전시온실에서는 나무고사리·알스토니아·보리수나무 등 437종을 관찰할 수 있다.

“야외의 어린 나무·풀들이 제법 큰 키로 자라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계절전시온실이 수목원의 주요 관람 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격이죠.”

계절마다 새롭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수목원

수목원 옆으로는 시원스러운 청류시 물길(인공 수로)이 전통정원을 돌아 민속식물원까지 2.4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이곳 수목원은 예전에 논·밭이 있던 자리로 인공 수로를 만들어 금강 물을 끌어왔다. 수로 옆길을 걸으면서 물가나 물속에 자생하는 다양한 수생·수변식물을 보고 계절별로 찾아드는 철새와 물새도 관찰할 수 있다.

“수목원을 조성한 뒤에 나비나 벌 등이 꽃을 찾아 여기로 날아왔고 나무를 찾는 여러 새도 날마다 데이터로 기록하고



4 국립세종수목원의 사계절전시온실 5 국립세종수목원 조감도 | 국립세종수목원

있는 중입니다.”

이 물길을 따라 전통 정원과 희귀·특산식물 전시온실이 있다. 수목원 한복판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2만㎡)은 자연에 순응하며 풍류를 즐기던 궁궐정원·별서정원으로 가꿨다. 궁궐정원은 창덕궁 주합루와 부용정을 실제 크기로 조성했고 별서정원은 담양 소재원을 주제로 계류·화오·담장 등을 연출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식물과 서식지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희귀식물 중 남부지방(아열대·난대기후대)에 분포하는 식물(섬개야광나무·황근 등 125종 3000여 본)을 전시한 희귀·특산식물 전시온실도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

수목원 곳곳에 조성된 여러 정원에 이르는 길은 모두 곡선으로 났다. 길가에는 살구나무·칠엽수·메타세쿼이아·버드나무 등을 길마다 특색있게 심었다.

“봄날 우리 수목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다른 종류의 목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하나씩 새롭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수목원으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후계목 정원에서는 뉴턴의 사과나무 후계목(4대손)도 볼 수 있다.

약 10년 전 세종시를 본격 조성할 당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논의하는 식물전문가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전문가로 참여한 이 원장이 “이곳에 수목원을 만들면 좋을 거 같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의 유료 연간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벌써 3400여 명을 넘는다. 이 원장은 “나무·풀을 향한 국민의 관심이 몇 년 새 크게 늘었다”며 “아직 많은 사람이 수목원을 관광지처럼 여겨 마음먹고 날 잡아



구경 오는 장소로 생각하지만 수목원·식물원은 생활 속에서 일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식물 전시시설과 규모, 정원 문화에 대해서는 “서구의 수목원·식물원은 우리보다 앞서 수백 년 역사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수목원·식물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견줘 숫자는 부족하다”며 “하지만 국립수목원들에서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식물자원 보전·연구 활동은 선진국들도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들은 대개 야생의 것을 보기 좋도록 꽃만 크고 많게 하거나 꽃 색깔을 진하게 개량한 품종이 대부분이다.

“이제 영국 등 세계적인 정원마다 화려한 것보다는 자연적인 야생 그대로의 다양한 모습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게 추세입니다. 우리도 앞서가는 정원 중에 하나죠.”

청소·경비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아파트 경비직 및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국민청원은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이 됐다. 소외됐던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공론화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2020년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입주민에게 코빼기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하고 협박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청원인은 “경비 아저씨가 주차 문제로 4월 말부터 20일 정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든 폭언을 듣고 생을 마감하셨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경비 아저씨는 입주민들에게 매번 잘해주시고 자기 가족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매번 아파트 주민을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분이셨다”고 회상하며 경비원과 갈등을 겪은 입주민에 대해 “이중주차로 자기 차를 밀었다고 사람을 협박하고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했다”라고 표현했다.

청원인은 “경비 아저씨들이나 하청 용역분들을 보호해달라. 경비 아저씨들도 한 가정의 사랑받는 소중한 할아버지, 남편, 아빠”라며 “입주민의 갑질 없어져야 한다. 오히려 아파트

를 위해 입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신다고 응원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에 44만 6434명의 국민이 동의했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살피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보탤다.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반드시 규정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비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돼 있는데 현실은 경비 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 지도, 택배 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현실과 법 적용 사이에 괴리가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짚어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 실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을 보장해 주세요”

2021년 6월 21일 등록된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 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3만 2595명의 국민이 공감했다.

청원인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간헐적으로 지적됐다. 이제는 하루 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훌쩍이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며 “휴식권도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와 용변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산업이 다 무슨 소용이냐. 휴식권 보장을 법정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다”며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 답변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현재도 사업주의 휴게 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가 마련돼 있지만 강제할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빈틈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최근 국회에서 휴게 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변화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첫째, 휴게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둘째,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셋째, 하청 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 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사업주가 휴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할 근로자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노동자까지 포함시켜 휴게 시설 설치가 도급인(원청)의 책임임을 명시했다.

개정된 법안은 2022년 8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휴게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심은하 기자

양육비 내도록 처벌 강화... 긴급지원도 늘려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2018년 2월 23일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 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이라는 제목으 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구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양육비를 지원받는 미혼모는 4.7%에 불과하다”며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토론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3월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었다.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재판, 추심까지 도와주는 기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2017년 6월 말 집계한 양육비 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1253건 중 여성이 1063건으로 84.8%에 달한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아 자녀 양육을 한쪽이 모두 떠안고 있는 경우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아버지도 양육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덴마크의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국내에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민은 청원 글을 통해 “덴마크는 미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하고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가 미혼모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보낸 뒤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다”며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더라도 유전자(DNA) 검사로 아이 생부의 여부를 밝힌다.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양육비 강제집행

여러 국가에서 양육비 강제집행 제도를 갖추고 있다. 독일은 1979년 양육비선급법을 제정해 12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정부로부터 기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 지급한 생계비를 회수한다. 법원이 발부한 양육비 집행증서는 별도의 경고 없이도 집행관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영국은 2000년 아동지원·연금·사회보장법을 만들어 양육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단순화했고 2008년에는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위원회’를 만들어 양육비를 거둬들이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폴란드, 오스트리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여권 발급을 불허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허가 사업의 면허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수단을 활용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1984년 제정된 자녀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 공제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어내고 돌려주는 ‘연방 세금 환급 차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매년 20억 달러 이상 추심한다.

뉴질랜드에서는 국세청이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를 직접 맡아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쉽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엄청난 체납 연체료가 붙는다. 호주에선 양육비 이행 담당관이



2016년 기준으로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 10명 중
9명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결국 아이를 포기한 것이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내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다.

채무자에게 출국금지까지 내릴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비양육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라 불리는 양육비 대지급제 제정 청원에 21만 7054명의 국민이 호응하며 양육 미혼모의 육아 환경 개선을 응원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특히 비혼모에 대한 복지 대책 외에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이들이 양육 부담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비혼모들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렸다. 이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받는 아동 연령을 18세로 높였다. 2017년 만 13세 미만에게만 지급돼 수혜 아동이 7만 5000명에 불과했는데 2019

년부터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돼 2020년 기준 13만 7000명의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금액 자체도 인상됐다. 2017년 월 12만 원 수준이었던 지원액이 2019년 월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고 경제 능력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7월 양육비를 미지급한 한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규 시행, 주거환경 개선 정책 등 단순 경제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 10명 중 9명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결국 아이를 포기한 것이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내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다. ●

심은하 기자

‘범 내려온다’ 후속 ‘경운기 머드맥스’도 터졌다



약 3억 뷰를 기록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후속작도 인기몰이에 나섰다.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K-힙합에 민요를 가미한 한국관광 신규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를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충남 서산 지역의 들과 바다·갯벌 등 자연은 물론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 유명 관광지 등을 빠른 영상에 담은 ‘머드맥스 서산편’은 보름만에 700만 명이 넘게 시청해 ‘시즌1’의 ‘범 내려온다’에 이어 흥행 대박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재미있게 재구성한 이번 영상에서는 바지락을 캐기 위해 갯벌 위를 폭주하는 경운기들의 경주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다. 출연자들은 실제 서산 주민이고 이들이 바지락을 캐러 나가는 것도 설정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 서산 대산읍 오지리 주민 80여 명과 경운기 30여 대가 동원됐다.

재미만 담지 않았다. 1분 24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유기방가옥, 해미읍성, 간월암, 오지리 갯벌 등 서산의 핵심 관광지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머드맥스 서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재미있게 재구성한 이번 영상에서는 바지락을 캐기 위해 갯벌 위를 폭주하는 경운기들의 경주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다.

가 등장한다. 한 주민이 경운기에 시동을 건 후 일제강점기 가옥인 유기방가옥(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을 지나 산길과 논길을 빠르게 내달린다. 서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미읍성이 나오고 바닷가에 접어들어 간월암을 배경으로 질주를 이어간다. 경운기 수는 점점 늘어나고 이들은 떼를 이뤄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산의 가로림만으로 향한다.

해외 누리꾼 “어떤 자동차 경주보다 멋져”

영상뿐만 아니라 음악도 귀를 사로잡았다. 민요 ‘옹헤야’를 재해석한 힙합 음악을 곁들여 박진감을 더했다. 이번 영상은



2



3

1 전차부대를 연상케하는 갯벌 경운기군단이 갯벌을 질주하고 있는 서산편 2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담은 순천편 3 골목 문화를 보여주는 대구편 |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갈무리

‘시즌 1’ 당시 누리꾼들이 지적한 “판소리가 조선의 힙합이며 랩”이란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 유명 힙합 레이블 하이어뮤직과 AOMG가 참여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누리꾼들은 한마디로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독일인으로 소개한 누리꾼은 “수십대의 경운기가 달리는 모습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자동차 경주보다 멋있다”며 “독일도 이처럼 도시를 재미있게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적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한 누리꾼은 영어 댓글을 통해 “음악, 영화, 문화를 잘 조화시킨 이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의 풍속과 전통 등 아름다운 나라를 탐구하고 체험해서 참 행복했다”고 적었다.

서산 시민들도 크게 환영했다. 한 시민은 “그동안 서산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끈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주목받아 기쁘다”며 “서산의 매력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알려져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많은 이들이 서산을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연 기자

힙합과 민요 어우러진 10개 도시 8편 영상 공개

한국관광공사는 서산편 외에도, 경주·안동, 대구, 순천, 부산·통영, 양양·강릉, 서울 등 모두 10개 도시를 테마로 한 8편의 영상을 공개했다. 힙합과 민요 후렴구가 어우러진 도시별 음원도 제작됐다.

경주·안동편은 음원으로 민요 ‘강강술래’를 활용했고 강강술래 춤과 사자춤, 오고무를 조합했다. 대구편은 먹거리와 골목 문화를, 순천편은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담았다. 부산·통영편은 ‘바닷가에서 치유’를 주제로 삼았고 서울편은 수도의 현대적·전통적 모습을 2편으로 나눠 제작해 도시별로 관광지를 특색있게 보여줬다.

서울편의 아리랑은 탑골공원과 동묘 벼룩시장, 황학동 가구시장, 종각, 낙원상가 등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도심 명소들을 해당 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소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장은 “이번 홍보영상은 국내 유명 힙합 뮤지션들과 협업을 통해 음악으로 지역을 연상시키는 ‘소닉 브랜딩(Sonic Branding)’ 관광 마케팅을 최초로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림티에스지 국민비서 ‘구뻘’ 원하는 모든 행정서비스 하나의 채널로

7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대법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중복되는 서비스를 많이 통폐합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각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국민비서 서비스 ‘구뻘’은 흩어진 서비스를 사용자의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의 채널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백신 접종 정보는 물론 각종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뻘’과 민원을 상담해주는 ‘구뻘 챗봇’ 등을 탄생시킨 세림티에스지(주)가 7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선정됐다.

심사위원인 박서정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 대표는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에게 각종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작가는 “인공지능과 대량자료(빅데이터)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접목해 백신 등 당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한국판 뉴딜의 기획 의도와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개통 이후 약 650만 명 회원 가입

행안부는 9월 5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안내하면서 ‘국민비서’의 국민지원금 알람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알람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가구구성 변경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해준다.

2021년 3월 29일 개통 이후 9월 15일까지

약 650만 명이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해 생활정보

알람서비스를 신청했으며 1억 5000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29일 개통 이후 9월 15일까지 약 650만 명이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해 생활정보 알람서비스를 신청했으며 1억 5000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했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으로 분류된다. 국민비서를 개발한 세림티에스지는 디지털 뉴딜에서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저장, 그리고 운영까지 각 분야의 기술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접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임직원 350여 명 중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시스템 전문 기술자가 300여 명에 이르는 기술 중심 회사다.

국민비서는 ‘알림형 서비스’와 ‘대화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알림형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에 이용 동의한 뒤 알람 내용 및 서비스채널(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알림을 받고 싶은 항목은 현재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교통 범칙금 납부 안내·교통 과태료 납부 안내·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안내·건강검진 안내 등 총 7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연말까지 챗봇 상담서비스 21종으로 늘려

국민비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 과정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알림을 받을 플랫폼을 선택하면 된다. 1차 백신의 경우 접종 전날에 사전안내를 받고 당일엔 접종 뒤 유의사항 그리고



세림티에스지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 세림티에스지

3일 뒤에 이상반응 대처안내를 받게 된다. 2차 백신은 접종 3주 전에 예약안내를 받으며 나머지는 1차 접종과 동일하다. 접종 전날 사전안내, 접종 당일 주의사항, 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대처방안 정보를 차례로 받는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24시간 채팅상담 서비스인 ‘구뻐 챗봇’은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미리 준비된 질의응답 학습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시에 앞서 답변의 품질을 높였다. 세림티에스지 관계자는 “누리집 상단에서 상담 서비스를 누르면 된다”며 “모든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며 민원 데이터를 통합해서 활용하므로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사무안내·개인정보보호·자연휴양림·전자통관·지방계약·형사수



사·사이버범죄·공무원연금 등 총 11종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챗봇 상담서비스를 21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림티에스지 관계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한 차원 더 높은 지능형으로 발전시켜 정책정보가 국민에게 적시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한을 놓쳐 연체수수료를 내야 하거나 각종 정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이 각각의 챗봇 서비스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챗봇과 대화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지·납부 서비스, 챗봇 이용 채널 확대,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 확대, 서비스 제공 분야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찬영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인공지능 감염 관리 스마트 감염관리로 코로나19 선제 대응

7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보건소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신고되면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추가 검사, 입원 치료 필요성 등을 따져 환자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는 경증·무증상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산소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으로 이뤄져 있다. 의료진에 의한 대면 방식의 분류 작업은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들고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코로나19 환자 분류 연산방식(알고리즘)을 개발해 자동으로 환자를 배정해주는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스마트(지능형)병원 모델을 구축해 7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선정됐다.

코로나19 환자의 나이·체온·기저질환·호흡곤란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소치료와 집중치료 필요 점수를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을 제안한다. 경기도 병상배정반과 고양시 생활치료센터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2000여 건에 이른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감염환자 자료와 고양시보건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일산병원에서 확보한 감염병 환자의 발생·확진·치료·중증전이·호전·완치 등 환자 데이터 등이 활용된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조기 파악

일산병원은 또 지역단위 원격 생체징후 관찰을 통한 선제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고양시 안심숙소 자가격리자가 착용한 스마트링(반지)과 패치형 체온계를 통해 맥박·심전도, 체온 등 생체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의료진이 원격으로 관찰함으로써 환자 안정을 강화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안심숙소에 입소한 사람을 관찰하던 중 입소 2일째 38도 이상의 발열 등이 감지돼 보건소

일산병원이 구축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선제적 감염 대응은 물론 감염병 환자와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추가 감염 방지도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에 통보했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인 확인돼 신속히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사와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진료 협력체계 마련에도 기여했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환자·직원 등 동선을 추적하는 원내 감염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했다”며 “입원환자 및 보호자, 입원환자 접점 근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원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병실 구현을 통해 병실업무 자동화를 이뤄 의료진의 단순반복 업무 부담도 줄였다. 혈압계,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롯해 냉장고 온도 자동 모니터링, 휠체어 등 자산위치 확인 시스템, 수액 모니터링시스템 등이다. 검체·약품·시약 등이 들어 있는 냉장고의 이상 온도가 감지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알람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측정과 함께 관리 효율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자산위치 확인 시스템은 위치 파악이 필요한 여러 비품·장비에 비콘(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을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품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고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액모니터링 시스템은 수액 투여 속도를 실시간 확인해 오류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정확한 수액 속도 유지로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1·2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원격 협진을 실시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진의 환자 진료 집중에도 도움

일산병원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20년 지능형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의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에 선정됐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는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 주제를 선정하고 3개 분야(원격 중환자실·스마트 감염관리·병원 내 자원관리), 5개 컨소시엄(분당서울대학교병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계명대 동산의료원)을 지원했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주제에 맞는 적합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일산병원이 구축한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은 선제적 감염 대응은 물론 감염병 환자와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추가 감염 방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부담을 경감해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달의 한국판 뉴딜'을 심사한 석노기 영주대장간 장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데이터를 잘 활용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일산병

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센터 소장은 "의료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의료진의 감염병 대응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심사 소감을 밝혔다. ●

이찬영 기자

남도에 가면 예술이 무르익는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1년 9회째를 맞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9월 1일 개막해 10월 31일까지 6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탈리아어인 비엔날레(Biennale)는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를 일컫는 용어다. 1895년 시작된 베네치아비엔날레가 화제를 모으면서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도시마다 개성이 넘치는 비엔날레가 끊이지 않고 열린다.

1995년 처음 열린 광주비엔날레는 원래 현대미술 전반을 다루는 비엔날레였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에 집중해 열리고 있다. 2021년의 주제는 ‘디-레볼루션(d-Revolution)’. 디자인(Design)과 혁명을 뜻하는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공지능(AI)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기술과 감성의 협업(콜라보)을 통해 미래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비엔날레에 가면 디자인 분야의 현대적 흐름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진화할 것인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보고 만지고 듣고 즐기는 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전시 위주의 평면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보고 만지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주변 볼거리와

풍성한 맛집들이 즐비한 광주에서 열린다는 장점도 있다. 행사는 ▲본전시 5개 ▲특별전 1개 ▲기념전 2개 ▲국제학술행사 ▲온·오프라인 마켓 ▲디자인체험과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 개 국가 421명의 작가와 국내외 기업에서 총 1039종의 작품을 선보인다.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서는 광주시립미술관 옆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곳을 돌아본 뒤에는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찾아보면 된다. 1관 주제관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김준홍과 박서영의 작품 ‘엑스트라(XTRA)’ 앞에는 기념 촬영을 하려는 관람객이 줄을 잇는다.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기도 한 김준홍 감독은 작품 속에서 K-팝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감성의 혁명을 표현해냈다. 관람객들은 3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로 구현된 이미지를 통해 마치 뮤직비디오 속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AI관의 ‘DNA X’에 전시된 팀 에스씨아이의 작품 ‘마스크 미착용 시, 땡땡땡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미디어 아트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지역산업관은 디자인을 통한 광주의 혁명이란 주제에 맞춰 구성됐다. 광주 화장품업체들이 개





광주비엔날레 1관 주제관



광주비엔날레 2관 국제관



● **오광수 대중문화평론가(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문화 분야에서 기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시집 〈이제와서 사랑을 말하는 건 미친 짓이야〉, 에세이집 〈남만광대 전성시대〉 등이 있다. 현재는 문화현장에서 일하면서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발한 공동 브랜드를 선보이는 ‘광주 뷰티·코스메틱 비즈니스 존’과 광주의 우수문화산업을 소개하고 미래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광주 문화산업존’ 등으로 꾸려졌다.

전시관은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모바일 전시해설 서비스 ‘큐피커’와 함께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큐피커를 내려받아 기본 버전, 영어 버전 등 4가지 버전의 해설을 골라 들을 수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김현선 총감독은 이번 전시는 “환경, 장애, 인종, 젠더, 사상, 문화 등에서 다름을 이유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존중을 구현한 디자인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광주라는 예술 도시의 향기를 반영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관람객을 3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에는 전체 방역을 실시한다. 전시관 입구마다 자동소독게이트와 체온측정기, 정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전시 위주의 평면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보고 만지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주변 볼거리와 풍성한 맛집들이 준비한 광주에서 열린다는 장점도 있다.

무늬(QR코드) 등을 설치했다. 일반권 1만 3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4000원.

우리나라 수목 가치와 정신 재조명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어디에서든 수목화와 만날 수 있다. 그만큼 걸출한 수목화가도 많이 배출했다. 남종화의 거장 소치 허련에서부터 그의 손자인 남농 허건 등 헤아릴 수 없는 화가들이 남도의 산수를 그렸다.

2021년 2회째인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우리나라 수목의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고 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한 예술기행 코스로 적당하다. 10월 31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전시관과 진도 윤림산방 일원에서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 작가가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광양, 여수, 구례, 강진 등 도내 11개 시·군과 광주광역시와 함께 하는 특별전도 펼쳐진다.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박대성의 ‘천년매산’, 윤형근의 ‘청다색’, 이종상의 ‘풍우독도’ 등을 만날 수 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서는 김종경의 ‘반추목’ 김천일의 ‘월출산 신흥마을’을 선보인다. 유달초등학교에도 신세대 수목화가들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다. 부대행사로 10월 27일 진도 윤림산방에서 수목구름숲 패션쇼와 수목 노을 콘서트를 개최된다. 목포문화예술회관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누리집(<https://sumukbiennale.kr/sumuk/index.do>) ●

daebak! mukbang, chimaek...

〈대박〉

〈먹방〉

〈치맥〉

옥스퍼드사전 실린다 ‘대박!’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재 우리말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OED)에 우리말이 대거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OED를 발간하는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최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영어사전에 등재된 새 영어 단어 1650개를 발표했는데요. 이중 우리말 유래 단어 26개는 따로 분류해 자세히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이번 소식을 전하며 스스로 ‘대박!(daebak)’이라고 평가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2013년까지만 해도 21만 8600여 개의 표제어(사전에 올려 낱말 풀이를 해두는 말) 가운데 우리말 유래 단어는 10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깜짝 놀랄 만한 변화입니다.

누나(noona) 오빠(oppa) 언니(unni)

먼저 한류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누나(noona) 오빠(oppa) 언니(unni) 등 호칭이 대표적인데요. OED 측은 “‘누나’는 남성이 손위 여성 동기간이나 나이 많은 여성 친구를, ‘오빠’는 여성이 손위 남성 동기간이나 나이 많은 남성 친구를, ‘언니’는 여성이 손위 여성 동기간이나 나이 많은 여성 친구를 부르거나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정의했는데요. 이 같은 호칭이 세계적인 관심을 얻어 OED에 등재된 것에는 K-팝과 K-드라마 열풍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OED 측은 “‘오빠’와 ‘언니’는 한국 밖에서 사용될 때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어왔다”며 “K-팝이나 K-드라마 팬들은 ‘언니’를 자신의 성별과 무관하게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여성 배우나 가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 ‘오빠’는 매력적인 한국 남성, 특히 유명한 배우나 가수를 부를 때 쓰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도 사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먹방(mukbang) 잡채(japchae) 불고기(bulgogi) 치맥(chimaek) 김밥(kimbap) 반찬(banchan) 삼겹살(samkyeopsal) 갈비(galbi) 동치미(dongchimi) 아홉 개 단어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치맥’에 대해선 “치킨(chikin)의 치(chi-)와 맥주(maekju)의 맥(maek-)이 결합한 이 단어의 사용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프라이드치킨과 맥주의 조합은 2014년 K-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인해 한국 밖에서 유명해졌다”고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치맥’은 우리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먹방’도 마찬가지고요.

옥스퍼드 영어사전 신규 등재 우리말 유래 표제어 (2021년 9월 기준)

aegyo	애교	hanbok	한복	noona	누나
banchan	반찬	japchae	잡채	oppa	오빠
bulgogi	불고기	K-, comb	K-복합어	PC bang	PC방
chimaek	치맥	K-drama	K-드라마	samgyeopsal	삼겹살
daebak	대박	kimbap	김밥	skinship	스킨십
dongchimi	동치미	Konglish	콩글리시	tang soo do	당수도
fighting	파이팅	Korean wave	한류	trot	트로트
galbi	갈비	manhwa	만화	unni	언니
hallyu	한류	mukbang	먹방		

자료: 옥스퍼드 영어사전

우리말이 세계적인 관심을 얻어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것은 음악, 영화,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언어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진 영향입니다.

PC방(PC bang) 학원(hagwon) 트로트(trot)

무엇보다 가장 시선을 끈 것은 'K-복합어'인데요. OED 측은 "한류가 확산하면서 'K'로 축약된 코리안(Korean)이 다른 명사와 결합해 한국이나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명사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과 K-드라마의 성공은 지금 매우 널리 퍼져 있어서 (한류 관련 표제어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이름으로 옥스퍼드 사전에 실었다"며 한류를 뜻하는 'hallyu'와 'Korean wave'가 OED에 정식 등재됐음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OED 측은 한복(hanbok)처럼 널리 알려진 우리말뿐만 아니라 대박(daebak) 등 감탄사에 더해 PC방(PC bang) 학원(hagwon) 트로트(trot) 등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단어도 사전에 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이 세계적인 관심을 얻어 OED에 등재된 것은 음악, 영화,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언어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진 영향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한글날입니다. 특히 2021년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영상대면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데요. 글로벌 언어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백미현 기자



1



2



외국인이 먼저 알아보고 사랑한 한국적 그림

인상주의 화풍 그림은 누구에게나 인기가 높다. 어렵지 않은 주제와 밝은 색채, 부담 없는 친숙한 이미지 때문이다. 국가, 인종,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상주의 미술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양식. 인상주의가 유행하기 이전 18~19세기 초 낭만주의나 (신)고전주의, 리얼리즘 미술은 내용이 너무 거창했다. 프랑스 혁명과 카메라 발명 이후 정치나 역사에 관한 거대 담론이 인상주의 이전 그림의 주제였다. 어떤 면에선 종교에 사로잡혔던 중세시대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인상주의 이후 20세기 초에 등장한 입체파, 야수파, 미래파 그림은 너무 어려웠다.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피카소, 마티스, 보치오니 같은 작가의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히는 박수근 그림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박수근을 인상주의 화가라고 규정할 순 없다. 그림에도 여러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일례로 박수근이 인상주의 화가 밀레를 동경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어린 시절 밀레의 작품 '만종' 복제품을 본 박수근은 자신도 밀레처럼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다. 도시 문명을 벗어나 시골 농촌마을 바르비종에서 농부의 삶을 그렸던 밀레처럼 박수근도 우리나라의 농촌과 소박한 서민의 삶을 화폭에 담았다. 인상주의 미술처럼 친숙하고 어렵지 않다.

국민화가 박수근의 일생

박수근은 1914년 강원도 산골마을 양구에서 육남매의 장남으

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길 좋아했지만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양구공립보통학교(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줄곧 독학으로 그림공부를 했다. 당시 부잣집 출신 화가들은 일본이나 심지어 프랑스로 유학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사정이 그렇지 못한 박수근이 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조선미술전람회(선전)'(해방 이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로 이름이 바뀐다)에 출품해서 상을 받는 것이었다. 1932년 18세 때 제11회 선전에 처음 출품해 입선했다.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그때 그림은 기와집을 배경으로 빨랫줄에 옷을 걸고 있는 여인과 그 곁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그린 사실적 풍경화다.

1940년 스물여섯 살 박수근은 부잣집 만딸로 춘천여자고등학교에 다닌 재원이자 기독교 신자인 김복순과 결혼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잠시 했다. 평양에 있던 평안남도 도청에서, 이때 아내를 모델로 한 <맷돌질하는 여인>, <모자(母子)>등을 그렸다. 이후 8·15해방과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홀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가족과 헤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족을 만나 서울 창신동에 정착했다.

이때부터 미8군에서 미군 병사 초상화를 그리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같은 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소설가 박완서의 소설 <나목(裸木)>에 당시 박수근의 삶과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평생 변변한 직업 없이 오직 그림만 그린 전업작가로서 삶은 팍팍했고 녹록지 않았다. 수입이라곤 당시 서울에 있던 유일한 화랑인 반도화랑에서 가끔씩 팔리는 그림값이 전부였다. 이때 박수근 그림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작품을 구입한 사람은 외국인들이었다. 특히 미국 외교관 부인인 마가렛 밀러 여사는 박수근 그림의 열렬한 팬이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밀러 부인은 박수근과 편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그림도 수십 점 구입했다. 둘 사이 오간 편지는 지금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박수근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내용과 형식에서 한국적 정서 담아

박수근 그림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한국적인 정서를 짙게 담고 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집 자체를 그리거나 집들이 있는 골목길이고 둘째는 여인의 일상 모습이다. 머리에 짐



3

- 1 박수근, '골목안', 캔버스에 유채, 80.3×53cm, 1950년대
- 2 박수근, '절구질 하는 여인', 캔버스에 유채, 130×97cm, 1954
- 3 박수근, '나무와 두 여인', 하드보드에 유채, 16.5×19cm, 1964

을 얹은 여인, 절구질하는 여인, 빨래하는 여인, 아기를 업은 여인, 길 위에서 물건을 파는 여인을 즐겨 그렸다. 이 시리즈가 가장 대표적이고 작품 수도 많다.

셋째는 앙상한 나뭇가지로 표현된 '나목'과 어울린 인물화다. 주로 말년작에 해당한다. 더불어 형식적으로 두터운 마티에르(표면의 질감)가 주목된다. 특유의 질감으로 표현된 그림표면은 마치 이끼 낀 화강암처럼 보인다. 이런 요소가 바로 박수근을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미감을 표현한 작가로 각인시킨 것이다. 1965년 5월, 간경화가 악화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52세가 되던 해였다.

박수근은 이중섭, 김환기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을 잘 표현한 작가로 유명하다. 공교롭게 이들 작품은 지금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림값이 예술성과 반듯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한편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



●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창작에서 전향해 몇 년간 큐레이터로 일했고, 미술 전문지 <월간미술> 기자로 입사해 편집장까지 맡아 18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저널리스트'로 불리는 것보다 여전히 아티스트에 가까운 '미술인'으로 불리기 원한다.

공감 리뷰



한가위가 찾아왔지만 코로나19와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16대 성수품의 하루 평균 공급량을 늘리고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을 꾀하고 또한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덕분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해 추석 전에 전 국민 70%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율 목표에 백신 수급·접종에 총력 대응하고 연휴 보건소 선별진료소 정상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검사소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한 추석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 K-방역의 힘을 믿고 응원합니다.

김명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대 교수와 대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뻔한 덕담이 아니라 담담한 평가를 해 오하려 신뢰가 갔습니다. 특히 '주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10~20년 전만 해도 한 국가의 부는 최종적으로 그 문화의 수준에서 평가되는데 그 문화라는 것은 소위 대중문화가 아닌 그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 향유하는 고급문화 즉 '클래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흔재 속에서 전통적인 주류는 해체됐습니다. 또 과거에 대한 열등감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세계인이 공유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오려 그 열등감을 극복·계승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는 지적은 한국적 보편성의 지속을 위해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균 서울 은평구 응암동

사진 공감



부산 온천천변을 걷다 보면 왜가리가 고개를 쪽 내밀어 물속 먹이를 찾아다니거나 한 발을 살짝 들고 외로이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친구, 가족이 없어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고독해 보이기도 한다. 오늘은 왜가리가 평소와 다르게 잘 가꾸어 놓은 화단에 올라와 긴 목을 수그리고 꽃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거닌다. 그 모습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을 거는 것 같다.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편히 지내는 친구가 됐으면... 김윤형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www.instagram.com/wegonggam

1boon.kakao.com/weekly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post.naver.com/mcst_pr

blog.naver.com/mcst_pr

ridibooks.com

digital.kyobobook.co.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거나, 사진마을 참여마당(http://photovil.hani.co.kr/participation)에 올려도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6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조사기간
2021년 4월~10월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및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이산가족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조사원의 전화조사 또는 방문조사에 응답

- 조사원이 조사기간 중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자택으로 전화
또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가구 방문 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콜센터

02) 2056-3388

오전 9시~오후 9시(월~금)

홈페이지

남북이산가족찾기

<https://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찾기



고맙습니다

전 국민의 70%, 3,600만 명 동참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상까지 한 걸음 더



질병관리청